

#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정착을 위한 억양 교정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 수 연\*

고려대학교

이 연구는 함경 방언권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억양 교정을 시도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언어 적응 교육을 제공할 토대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어의 기본 강세구 패턴 THLH와 문장 유형별 억양구 경계성조 특징을 습득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함경 방언 억양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음성분석 프로그램 Praat을 이용하여 억양 곡선을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청각적 피드백을 함께 제공하여 억양 교정을 시도하였다. 강세구 패턴, 평서문과 의문문의 억양구 경계성조, 부정문의 부정부사 음높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험 문장을 설계하고 북한이탈주민 2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억양 교정을 실시하였다. 언어 교육 전문가 3인이 5점 리커트 척도로 억양 평정한 결과 모든 문장에서 교정 전과 후의 현저한 개선이 확인되었다. 또한 억양 교정 전과 후의 억양 곡선의 양상을 확인한 결과 교정 후 측정된 억양 곡선은 시각적으로도 함경 방언의 특성보다 한국어 억양 곡선의 특성을 나타내어 억양 교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주요어 : 북한이탈주민, 언어적응, 억양교정, 억양, 강세구, 억양구 경계성조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B5A17054953).

\* 주저자: 이수연/고려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대학 초빙교수/(300190)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2511

/Tel: 044-860-1503/E-mail: salee0916@naver.com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2024년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3만 4천 명을 넘어섰다. 이것은 남한에서 생활하는 일반 한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비교적 쉽게 북한이탈주민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남한 사회 시민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석향(2005), 권순희(2014), 정순미(2010), 이홍식(2007), 조소연(2019), 김경미(2021), 조연주(2018), 조완철·조위수(2018)와 같은 연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남북한의 언어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에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이질적인 억양과 말투로 인해 비호의적인 시선을 느끼기도 하고 말투가 다르다는 이유로 취업이나 사회생활 등의 불이익을 받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권순희(2014)는 남·북한의 오랜 분단으로 인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을 비롯해 언어에서도 그 이질화 현상이 심화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어휘와 억양의 차이가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언어 적응 교육과정을 분석한 조연주(2018)는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80% 이상)이 남한말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는데 세부적으로는 발음과 억양을 꼽았다. 또한 조완철·조위수(2018)가 언급한 것과 같이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남한식 표준 발음과 억양을 습득해 구사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다.

따라서 억양의 차이는 북한이탈주민을 남한 사회에 자연스럽게 적응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억양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은 단순히

북한이탈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이제 북한이탈주민들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남한 주민들에게도 남북한의 어투나 억양 차이는 언어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적응해 나가기 위해 남한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개선하려는 그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남한 주민의 입장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두 방언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서로의 언어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언어 교정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두 방언의 음운적 차이나 어휘적 차이에 대한 교육 못지않게 억양 교정 프로그램 제공이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억양 교정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언어 적응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의 억양으로 특정할 수 있는 지점을 포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억양 교정 훈련 안을 제시하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억양 교정을 시도하여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문장 유형별로 평서문, 의문문, 부정문의 억양구 경계성조의 음높이 변화의 차이 단서와 한국어 강세구 유형을 가지고 억양 교정 기초 자료를 구성한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언어의 억양 교정을 시도하여 그 효과성과 억양 교육 프로그램 보편화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어를 대표하는 서울 방언의 억양 특성을 알아보고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80% 이상이 함경 방언 화자이므로<sup>1)</sup> 함경 방언 및 서울말의 억양과 억양 교육에 관

한 선행 연구 문헌을 살펴본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논의되었던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간추려볼 수 있다. 첫째 각 방언의 운율 구조와 특성을 밝힌 연구, 둘째 두 방언의 운율적 특성을 비교·대조한 연구, 셋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억양 교육을 시도한 연구이다. 주요 논의를 살펴보고 본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필요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이현복(1987)은 한국어에 흔히 쓰이는 억양의 형태를 ‘네’라는 홀음절을 중심으로 8가지 낮내림, 높내림, 오르내림, 내리오르내림, 낮오름, 높오름, 내리오름, 오르내리오름으로 구분하고 있고 허웅(1985)은 국어의 말끝 높이는 마디의 끝이 오름, 수평, 내림 중 하나로 발음되며 이 높낮이는 말의 의미 분별에 중요한 구실을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어에서 대개 서법을 나누는 역할은 서술어의 어미가 담당하고 있어 어미가 ‘-느냐’와 같이 확실히 의문을 나타내는 경우의 오름 가락이 ‘-어’의 오름가락보다 덜 분명함을 언급하였다.

이호영(1991)은 한국어의 문장 억양의 단위를 말마디 끝억양(핵억양)과 말토막 억양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말마디 억양의 전체적인 의미가 말마디의 마지막 음절에 놓이는 높낮이 형태에 집중되어 전달된다고 하였고 그 목록으로 9개를 제시하였다.

전선아(2000)는 한국어의 억양 구조를 크게 억양구인 IP와 강세구인 AP 두 운율 단위로 구분하였다. IP는 하나 이상의 AP를 포함할 수 있으며 경계음조는 억양구의 마지막 음절에서 실현된다고 하였고 그 유형으로 9가지를 제시하였다. 강세구는 억양구보다 작고 음운단어보다 크며 THLH로 표시되는데 강세구의 첫 번째 분절음이 평음이면 T는 L로, 격음이나 경음, 마찰음이면 T는 H로 실현되며 THLH라는 기본적인 유형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H는 ‘high’를, L은 ‘low’를 뜻한다.

다음으로 함경 방언의 운율적 특성에 관한 연구

들을 살펴보겠다. 함경도 방언의 운율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1음절어부터 다음절어까지 체언과 체언의 조사 결합형을 대상으로 그 성조소를 밝혀내는 작업이 주를 이루었고(김영만 1974, S. Robert Ramsey 1974, 전학석 1994, 김봉국 2004, 박진혁 2018), 음소나 음운현상을 대상으로 논의한 연구도 있어 왔다(강순경, 1997; 이호영 외, 2009; 정은혜, 2011; 배준영, 2011). 그리고 함경 방언권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제보를 통해 수집된 자료로 발화 문장에 얹힌 운율을 다룬 연구는 최미영(2013), 김다미 외(2019), 이수연(2020), 이수연(2022) 등이 있다.

다른 방언과 함경 방언을 비교하거나 문장 억양에 관해 실험음성학적으로 논의된 연구들(전학석, 1994; 이호영 외, 2009; 최미영, 2013; 김다미 외, 2019; 이수연, 2020; 이수연, 2022)에서 보고한 두 방언 화자의 문장 발화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 방언 화자의 경우 의문문 문미는 주로 오름조가 나타나는 반면, 북한이탈주민은 평서문과 의문문 모두 문미 억양이 내림조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울 방언 화자의 발화 문장의 음도 범위가 함경 방언을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발화보다 넓은 점 북한이탈주민의 부정문에서 부정부사의 음높이가 높고 강조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이수연(2022)에서는 함경 방언을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 19명과 서울 방언 화자 10명을 대상으로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부정문 문장의 억양구 경계음절 음높이 변화량, 음도 범위, 문장 평균 음높이, 부정부사 음높이를 대조·분석하였다. 여기에서 북한이탈주민은 평서문 발화 시 서울 방언 화자보다 내림조 유형이 많고 경계 음절의 음높이의 하강폭이 더 컸다. 의문문의 경우 함경 방언 화자가 서울 방언 화자보다 문미 경계 음절의 상승폭이 작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부정문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발화에서 부정부사의 음높이가 높고 두드러지는 특

1)(2023)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정을 지적하고 있다.

함경 방언과 서울 방언의 억양 차이를 추출하여 교육 자료 개발에 연계한 경우는 세 건(이호영 외, 2009; 권순희, 2014; 조연주, 2018)이 있으나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의 억양 훈련을 실시하여 보고한 경우는 두 건(김태희, 2010; 조완철·조위수, 2018)에 불과하다.

이호영 외(2009)는 보고서 말미에 <새터민이 배우는 표준 발음 교실>이라는 발음 교육 콘텐츠를 제시하였는데 총 8개 단원으로 '대화문-발음 설명-연습문제-대화문연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7단원에서 단어의 성조, 8단원에서 문장의 억양을 다루고 있는데 문장의 억양은 평서문에서 주로 사용하는 내림조 억양과 낮내림조 억양의 사용법과 의문문에서 주로 사용하는 오름조 억양의 사용법을 제시하고 있다. 위의 연구는 개별 음소의 음가와 음운현상에 많은 부분 할애하고 있고 문장 억양에 관해서는 한 단원에서만 평서문과 의문문에 관해 다루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의 전체적인 억양 교정을 위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

권순희(2014)는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교육을 위한 교재를 개발하여 소개하였는데 억양에 관해서는 각 단원마다 본문에서 억양 연습이 필요한 부분을 뽑아 연습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하여, 끊어읽기와 말토막의 높낮이를 제시하고 있다. 음성자료를 참고하여 학습하면 해당 문장을 자연스럽게 발화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 문장 유형에 따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두 방언의 특징적인 차이를 인지하고 규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팁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억양 교정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연주(2018)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언어적응교육 과정을 한국어 교육 관점에서 고찰하고 학습자 요구 분석과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언어적응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교수요목 설계에 그쳐 실제 교육을 시도하지 않았다.

김태희(2010)는 북한이탈주민 3명을 대상으로 시

청각적 피드백을 통해 억양 중재를 시도하여 보고한 연구인데 남북한 화자의 발화상 문장 억양 차이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지 않았고, 억양 중재 항목이 선정되지 않은 채 북한이탈주민의 발화를 연구자가 듣고 두드러지는 부분을 중재하는 방식이었다. 중재 결과에 대한 평가 또한 평정척도를 통한 주관적 평가로만 이루어져 아쉬움이 있다.

조완철·조위수(2018)에서는 조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표준 발음과 차이가 있는 분절음, 음운규칙, 억양 중심으로 정리하여 5차례 보이스트레이닝을 운영하였다. 억양 교육은 매 차시 진행되었고 주로 새도잉, 게임, 노래, 드라마 더빙 등 활동 위주로 이루어졌다. 총 5차례 트레이닝을 기준으로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고 평가하였는데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이 프로그램 참여 후 발음·억양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사후 검사가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검사에 그치고 있어 정확한 발음 억양 향상 정도를 측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면, 기존의 함경 방언의 운율적 특성을 기술한 연구는 운율 유형론적인 관점에서 기술된 것과 성조 언어로서의 성조소를 밝히거나 분절음 음가의 특성이나 음운현상에 주목한 경우가 많았다. 서울 방언 화자와 함경 방언 화자의 실제 발화를 대상으로 남북한 화자의 억양 차이를 실험음성학적으로 밝힌 연구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 대상 억양 교정 프로그램을 설계 및 운영한 경우는 양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실질적 교육 연계가 이루어진 경우가 드물다. 이렇듯 남북한 화자의 억양 차이를 바탕으로 한 억양 교육 방안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생활에서 억양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억양 교정 교육을 실시하여 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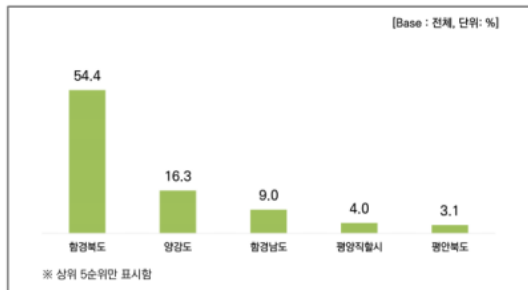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억양 교육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다른 영역(어휘, 문법, 발음교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게다가 북

한이탈주민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아니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범하는 억양상의 오류와 양상이 다를 것이므로 같은 선상에서 다를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험음성학적 비교·대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억양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억양 교육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 II. 연구 방법 및 내용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북한의 함경(함경북도 및 함경남도, 양강도) 방언 사용 지역 출신을 대상으로 억양 교정 훈련을 시도한다.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약 86%가 함경 방언 사용 지역(함경남북도, 양강도) 출신이므로 함경도 방언을 구사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sup>2)</sup>



[그림 1] 북한이탈주민 출신지역

앞에 정리한 것과 같이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억양 교육을 실제로 시도한 연구는 총 2건 정도로 조완철·조위수(2018)의 보이스 트레이닝과 시청각적 피드백을 통한 억양 교정을 시도한 김태희(2010)인데 두 경우 모두 한국어 문장

억양에 대한 단편적인 교정만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전 연구에서 함경 방언 화자의 발화와 서울 방언 화자의 발화를 실험음성학적으로 대조·분석하여 도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억양 교정 훈련에 적용할 것이다.

억양 교정 교육 대상자로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함경 방언을 구사하는 북한이탈주민 중에 억양 교정을 위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고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가진 자로 선정하였다. 다음은 피험자 정보이다.

<표 1> 피험자 정보

피험자	연령	성별	출신지역	남한거주기간
A	33	여	함경북도	13년
B	32	여	함경북도	7년

### 2.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함경도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시각적, 청각적 피드백을 통한 억양 교정을 시도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고 서울말을 제2 방언으로서 습득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한국어 억양 교정 교육은 교육 대상자가 한국어의 문법과 어휘를 알고 있는 고급 학습자 이상의 언어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절차를 구성해야 한다. 즉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외국어 교육과 달리 제2 방언 교육에 해당하는 영역이므로 학습자의 언어적 학습 진도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억양 교정 과정이 간소화되어 있는 김은애 외(2008)의 방안을 참고한다. 또한, 앞서 살펴본 외국어 억양 교육 방법 및 제2 방언 억양 교육 방법에서 소개된 기술을 참고하고 정명숙(2002)의

2) (2023)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제안대로 강세구 교육과 억양구 교육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함경 방언 화자로 이루어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구체적인 한국어 억양 교육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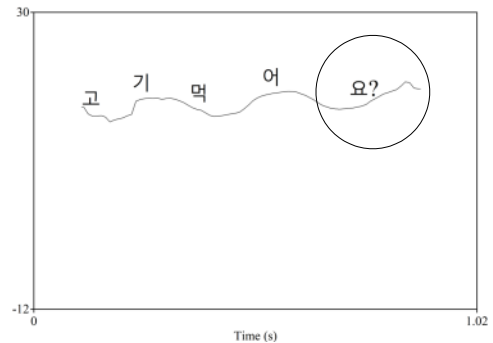
### 1) 인지 단계

먼저 ‘인지 단계’이다. 이 단계는 학습자로 하여금 억양 학습의 필요를 상기시키고 동기를 유발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먼저 단문으로 이루어진 서울 방언 화자의 발화 자료를 듣고 억양 상의 특징을 찾아내고 본인 발화와의 차이를 인지하도록 하는 민감화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때 청각에만 의존하도록 하지 않고 반드시 시각적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 눈과 귀로 두 화자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은애 외(2008)에서는 청취를 통해 억양 패턴을 인지하도록 하는 기존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실체가 없는 자료를 제시하고 따라 하도록 하는 것이 학습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평서문과 의문문 문장 억양과 강세구 패턴의 억양 곡선의 예를 통해 설명한다. 각 문장 유형별 교육에 앞서 서울 방언의 강세구 패턴과 문장 억양 전반에 걸쳐 음도 범위가 넓다는 점, 굴곡 억양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선학습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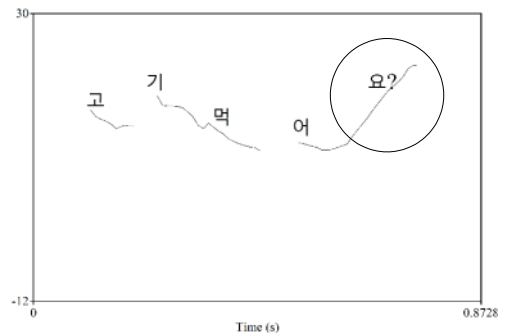
본고에서 교정을 시도할 강세구 패턴, 평서문과 의문문, 부정문의 서울말 특성과 함경방언 특성을 인지하도록 한다. 먼저 강세구의 패턴에서 첫 번째 분절음이 평음이면 T는 L로, 격음이나 경음, 마찰음이면 T는 H로 실현되며 THLH라는 기본적인 유형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시각적, 청각적 자료를 제시하여 설명한다. 평서문은 북한이탈주민과 서울 화자 모두 내림조를 주로 사용하지만 북한이탈주민 발화의 경계음절의 음높이 하강폭이 서울 화자보다 크다는 점을 음성분석프로그램 억양 곡선으로 시각자료를 사용하여 인지하도록 하고 음성자

료를 통해 청각 자료 또한 함께 제시한다. 의문문의 경우 서울 방언 화자는 H% 유형의 오름조 경계 성조를 주로 사용하는 반면 북한이탈주민의 발화에서는 두드러지는 상승이 적다는 점과 오히려 하강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시각적, 청각적으로 인지시킨다. 부정문의 경우 함경방언 화자인 북한이탈주민의 발화에서 부정부사의 음높이가 지나치게 높고 서울 방언 화자의 발화에서 부정부사는 매우 낮게 발화된다는 점을 시각적, 청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 [그림 2]는 함경 방언 화자의 의문문 문미 억양을 잘 나타내 주는데 억양구 경계 성조, 즉 문장의 마지막 음절이 상승형을 보이지만 [그림 3]의 서울 방언 화자와 비교하면 그 상승 폭이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두 방언 화자의 이질성이 드러날 수 있고 의사소통에도 영향을 줄



[그림 2] 함경방언 화자의 의문문 억양곡선



[그림 3] 서울방언 화자의 의문문 억양곡선

수 있음을 주지시키고 녹음 자료를 반복적으로 들려 주고 억양곡선 그림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학습자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서울 화자의 발화와의 차이를 설명한다.

## 2) 연습 단계

연습은 모방과 연습 활동을 통해 앞에서 인지한 것을 실제로 발화해보는 단계이다. 모방 연습은 정명숙(2002)에서처럼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연습으로 무의미 음절로 이루어진 문장을 제시하여 ‘나나나 나 나나나 나나나나’와 같이 연습할 수 있다. 억양구 패턴 규칙과 문미 억양 특징을 잘 살려 발화하고 있는지 교사의 꼼꼼한 확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모방언의 음의 높낮이를 제거하고 서울 방언의 음을 내재화한 후에는 무의미 음절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문장을 유의미한 문장으로 바꾸어 자연스럽게 발화하기 연습을 한다. 음성자료나 교사의 발화를 이용하여 듣고 억양 표시하기, 듣고 따라 하기, 다시 음성자료를 확인하고 따라 하기 방식으로 연습한다.

## 3) 평가 단계

평가는 두 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는 자가평가로 연구 대상자가 녹음된 자신의 발화를 듣고 교정 전과 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확인 및 점검하는 것이다. 이때 본인의 발화에서 서울 방언과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지, 서울 방언과 유사하게 발화하려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분석해 보도록 유도한다. 다른 하나는 연구 대상자의 발화를 녹음하여 발화의 자연스러움을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평가 방법을 사용하였다. 자연스러움에 대한 청지각적 평가를 위해 녹음된 피험자의 발화 내용은 교정 전, 1차 교정

후, 2차 교정 후에 녹음하였고 언어 교육 전문가 3인이 발화의 자연스러움을 평가하였다. 평가자는 5점 척도로 자연스러운 정도를 평가하였는데 매우 부자연스러운 경우 1점, 매우 자연스러운 경우를 5점으로 평가하였다. 평가자 간 신뢰도는 카파 상관계수가 0.215로 공정한 일치를 보였다.

##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 1. 억양교정 프로그램 내용설계

이 연구에서 설계 및 적용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억양 교정 프로그램은 한국어 억양과 연구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모방언인 함경 방언의 억양 차이를 기반으로 교육 문장을 문장 유형별, 강세구 유형별로 제작하고 시각적, 청각적 피드백을 통한 억양 교정을 시도한 프로그램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문장 억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강세구 유형과 억양구 경계음절을 교육 항목으로 구성하고 함경 방언에서 두드러지는 부정부사의 억양도 포함하였다.

먼저, 서울 방언 화자와 함경도 방언 화자의 발화 음성 자료를 대상으로 실험음성학적 비교·대조를 진행한 이수연(2022)과 이호영 외(2009)의 결과를 토대로 억양 교정 문장을 도출하였다. 또한 연구 중 접촉한 함경 방언을 구사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문장 억양 상의 특징을 관찰한 결과 한국어 강세구 교육이 추가되는 것이 좋겠다는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강세구 억양을 교정 자료에 포함시켰다.

다음 <표 3>은 억양 교정 문장의 목록이다.

<표 3> 실험 문장

항목	문장	억양 교정 사항
강세구 패턴	미연이네 어머니는 나연이를 미워하니?	강세구 패턴 적용 THLH

항목	문장	억양 교정 사항
	영만이는 어머니를 좋아해요. 철민이는 어머니를 좋아해요. 할머니는 어머니를 좋아해요. 어머니는 까만색을 좋아해요.	
평서문	민정이 지금 자.	억양구
	일요일에 교회 갔어.	경계음절
	저도 그 영화 봤어요. 회사 근무 경험이 없습니다.	음높이 하강폭
의문문	민정이 지금 자?	억양구
	일요일에 명동 갔어?	경계음절
	민정 씨도 그 영화 봤어요? 회사 근무 경험이 있습니까?	음높이 상승폭
부정문	아직 그 영화 안 봤어?	부정부사의 음높이
	점심 안 먹었는데 같이 먹자. 어제 교회 안 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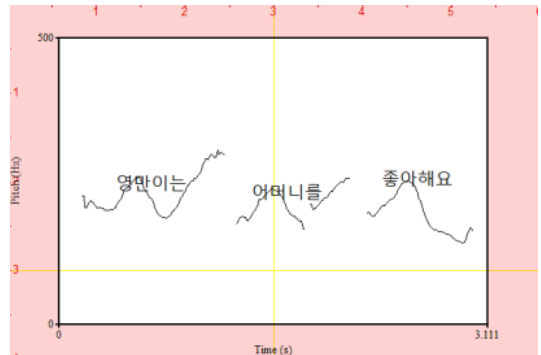
강세구 패턴(THLH) 연습을 위한 문장은 정명숙(2002)의 제시 문장을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이 문장은 초성의 성격에 따라 LHLH 혹은 HHLH가 반복되는 강세구로 구성되어 있다. 평서문과 의문문은 ‘-니다/습니다’, ‘-아요/어요’, ‘-아/어’로 다양한 종결어미를 모두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부정문의 경우 부정부사 ‘안’이 사용된 평서문, 의문문, 청유문을 각각 구성하였다.

## 2. 억양교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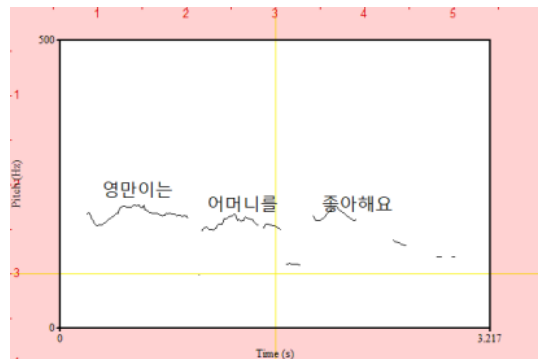
억양 교정 과정은 총 2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먼저 교정 전 발화를 녹음한 후에 1차 교정이 진행되었다. 1차 교정에서 한국어 강세구 억양 특징을 설명하고 평서문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발화에서 억양구 경계음절의 음높이가 크게 하강하는 반면 서울 화자는 하강 폭이 적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의문문에서는 반대로 서울말 화자의 경우 억양구 경계음절의 음높이 상승이 크게 일어난다는 점

을 주지시켰다. 부정문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발화에서 부정부사의 음높이가 높게 발화되는 반면 서울 말에서는 부정부사 ‘안’에서 음높이가 떨어졌다가 다음 음절에서 상승하기 시작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설명 시 음성분석 프로그램 Praat으로 억양곡선을 제시하여 시각적 설명을 함께 제공하였다. 1차 교정과 2차 교정 각각 약 4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1차 교정 전에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1차 교정 후 1회, 2차 교정 후 1회로 총 3회에 걸쳐 발화 녹음을 진행하였다. 1차 교정과 2차 교정 사이에 일주일의 시간차를 두었다. 다음 [그림 4]는 서울 화자의 강세구 억양 곡선이고 [그림 5]는 북한이탈주민 화자의 교정 전 억양 곡선, [그림 6]은 교정 후 억양 곡선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교정 전 발화는 한국어 강세구 규칙 LHL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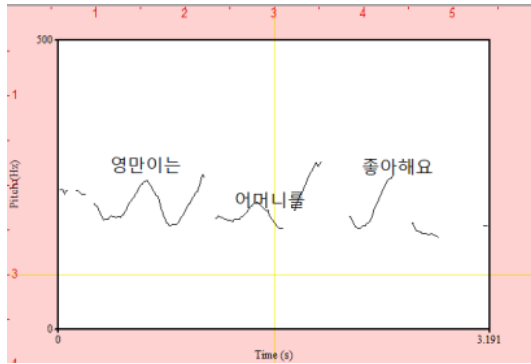


[그림 4] 서울 화자 강세구 패턴 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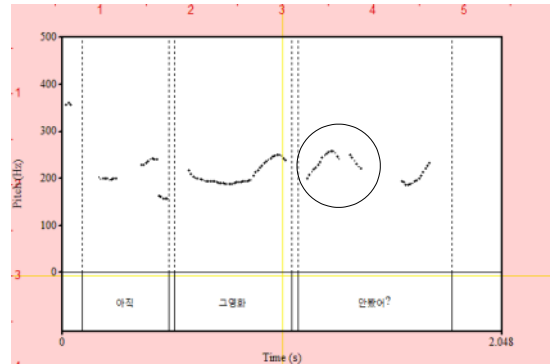


[그림 5] 북한이탈주민 강세구 패턴 교정 전 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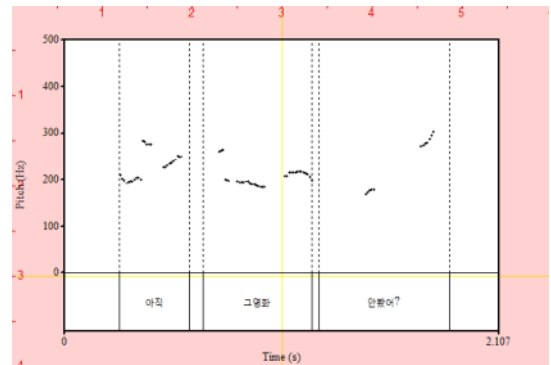
[그림 6] 북한이탈주민 강세구 패턴 교정 후 발화



[그림 8] 북한이탈주민 화자 부정문 교정 전 발화

가 지켜지지 않고 단조로운 상태를 보인다. 여기에서 시각적, 청각적 자료를 통한 설명 후 무의미 음절로 이루어진 강세구 패턴 연습을 한 후에 주어진 문장을 반복적으로 듣고 따라하는 방식으로 교정 과정을 거쳤다. 1차 교정 후 발화에서는 서울말의 강세구 패턴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 [그림 7]은 서울 화자의 부정문 발화 억양 곡선으로 부정부사 ‘안’의 음높이가 직전 강세구 마지막 음절보다 낮은 곳에서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그림 8]에서처럼 부정부사 ‘안’이 포함된 강세구의 음높이가 높은 곳에서 시작하는 양상을 보인다. 억양 교정 시 이러한 부분을 시각적으로 피드백하고 반복적으로 말하기 연습을 실시하였다. 교정 이후에 측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부정문 발화에서는 부정부사 ‘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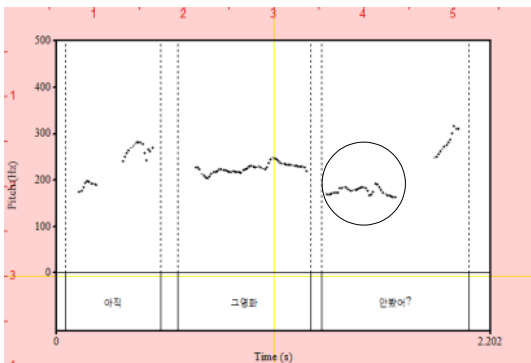


[그림 9] 북한이탈주민 화자 부정문 교정 후 발화

현저히 낮은 곳에서 시작하여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이탈주민의 교정 전 발화와 1차 교정 후, 2차 교정 후 발화를 각각 언어 교육 전문가 3인의 평가자가 자연스러운 정도를 1점에서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평가자들에게 억양 평정 요청 시 강세구 패턴 항목에서는 각 음소의 발음보다는 한국어 강세구 패턴 ‘THLH’가 잘 지켜지는지, 평서문과 의문문에서 문미(억양구 경계음절)의 음높이가 자연스러운지, 부정문에서는 부정부사의 음높이 두드러짐이 어떠한지 초점을 맞출 것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표 4>에서와 같이 강세구 발화의 경우 교정 전 발화의 점수가 2.10점, 1차 교정 후에 4.07 점, 2차 교정 후 4.40점으로 평가되었다. 평서문은



[그림 7] 서울 화자 부정문 발화

교정 전 발화가 2.21점, 1차 교정 후에 4.29점, 2차 교정 후 4.67로 나타났다. 의문문은 교정 전 2.13점, 1차 교정 후 4.25점, 2차 교정 후 4.17점이다. 마지막으로 부정문의 경우 교정 전 2.22점에서 1차 교정 후 4.28점, 2차 교정 후 4.67으로 억양 면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교정 전 2.16점에서 2차 교정 후 4.46점으로 집계되었다. 피험자 1과 피험자 2의 억양 평정 점수 차이는 최대 0.67점에서 최소 0.08점으로 나타나 피험자 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4> 억양 교정 전후의 억양 평정(5점 리커트 척도)

억양교정항목	교정 전	1차 교정	2차 교정
강세구 패턴	2.10	4.07	4.40
평서문	2.21	4.29	4.67
의문문	2.13	4.25	4.17
부정문	2.22	4.28	4.67
평균	2.16	4.21	4.46

이상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어 강세구 패턴의 특성과 억양구 경계성조 억양, 발화상 두드러지는 억양 특징은 교정 과정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항목이 1차 교정에서 상당한 개선이 나타났는데 이는 음운의 음가나 발음 규칙, 어휘 차이 등에 대한 교육에 비해 억양 교정의 기회가 적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한 번의 억양 교정 훈련 기회만으로 억양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1차 교정 이후 2차 교정에서의 개선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고 의문문의 경우 2차에서 오히려 자연스러움 평정 점수가 약간 떨어지는 현상도 보였는데 이는 1차 교정으로 억양 차이에 대한 인지가 억양 개선으로 이어졌고 2차 교정 이후 억양의 내면화 과정은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본다.

### 3. 피험자 반응

본 연구의 언어 교정 과정에 참여한 피험자의 반응을 간단히 인터뷰하였다. 그들은 한국에 입국한 이후 하나원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에서 언어 교육을 제공받은 적은 있으나 대부분 남북한의 이질화되어 있는 어휘나 외래어를 학습하거나 음소의 음가, 음운규칙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하였다. 하나원을 나온 이후에도 발음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었으나 하나원에서 받았던 내용과 유사하고 특히 음운규칙은 대부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은 적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억양 교정 교육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는 반응이었다. 또한 한국어의 강세구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고 놀라워했으며 간단한 규칙을 숙지하고 언어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 억양 고민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시도한 방식의 억양 교정 교육이 있다면 체계적, 장기적으로 받을 의향이 있다고 하였다.

## IV. 결론 및 제언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정착 및 적응을 위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관련 연구 또한 간간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언어 적응을 위한 인식 조사(이안용·박덕유 2020)를 살펴보면 ‘억양’이나 ‘말투’ 등으로 인해 ‘무시’나 ‘상처’ 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피험자 2명 모두 한국에 정착한 지 7년 이상 되어 한국에서 사용하는 어휘나 외래어, 북한과 달리 쓰이는 문법에 대한 교정은 이미 이루어졌으나 억양과 말투의 경우 그렇지 못하고 교육 기회가 있다면 받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에 정착한 지 오래 지났음에도 억양이

나 말투 부분에서 자신감이 없다는 점과 1차 교정만으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기존의 언어적응훈련에서 억양 교육이 부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한국에 정착한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의 모방언인 함경도 방언의 억양상의 특징과 서울말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부분을 종합하여 억양 교정 도구를 설계한 후 이것으로 직접 억양 교정을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이전 연구들에서 억양 교육 설계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진일보한 면이라고 본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단 1회의 억양 교정만으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효과성과 억양 교육 프로그램 보편화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셋째, 한국어의 주요 억양 패턴에 대한 교육이 문장 전반의 억양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과 네 번째로 시각적, 청각적 피드백을 통한 교육의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점이다. 덧붙여 단번에 억양 교정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억양 교정 교육의 기회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앞으로 정교화된 억양 교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한다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만족할 만한 언어 적응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먼저 억양 교정 대상자가 2명으로 대부분의 함경도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적응 정도를 대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대략의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억양 교정이 1차와 2차만으로 이루어져 오랜 기간을 두고 여러 차례 진행된 후의 억양 개선 정도를 측정하지 못한 점이다. 마지막으로 억양 교정 교육을 실시한 후에도 설계된 문장을 대상으로 측정하였기에 피험자의 실생활 속에서 억양 교정의 정도를 알 수는 없다는 점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여러 차례 교정 프

로그램을 실시한 후 자유 발화를 억양 측정 대상으로 삼는다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다수의 피험자를 확보하고 문장 읽기와 자유 발화를 모두 측정할 수 있는 다회차 억양 교정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장기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순경 (1997). 함경 방언의 모음 체계. *어학연구*, 33, 117-135.
- 김경미 (2021). 북한이탈여성의 외상 후 성장 경험에 따른 행위자성의 재구성. *미래사회*, 12(6), 94-116.
- 김다미, 김신희, 김지성, 안은솔, 조용운, 양윤희, 임동선 (2019). 북한이탈주민의 문장 읽기 억양 특성 - 음도범위와 청각적 평가를 중심으로. *음성과학*, 11, 9-21.
- 김석향 (2005). 남북한 언어 이질화 정도에 대한 집단별 인식의 차이 고찰. *현대북한연구*, 8, 85-124.
- 김영만 (1974). 국어 운율의 본질과 변천-함경·경상·전라·서울의 액센트와 중세국어의 성조의 비교적 고찰-. *국어국문학*, 65, 66, 29-51.
- 김은애, 박기영, 박혜진, 진문이 (2008). 한국어 억양 교육을 위한 방법론적 고찰 -교재 개발의 측면에서-. *한국어교육*, 19(2), 1-31.
- 김태희 (2010). 시각적 피드백을 이용한 담화상황에서의 언어중재가 북한이탈주민의 발화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 권순희 (2014).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현황.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 561-589.
- 박진혁 (2018). 함경 방언의 성조-음고의 유형론을 중심으로-. *방언학*, 28, 5-38.

- 배준영 (2011). 대구지역 새터민의 언어적응 양상 연구-음운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이수연 (2020). 함경 방언 구사 북한이탈주민과 서울 방언 화자의 음높이 대조 연구. 언어연구, 36(3), 349-372.
- 이수연 (2022).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적응을 위한 남북한 언어의 억양 대조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 이안용, 박덕유 (2020).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어교육에 관한 인식 연구: 유튜브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9), 681-706.
- 이현복 (1987). 억양과 국어 생활. 국어생활, 10, 41-49.
- 이호영 (1991). 한국어의 억양체계. 언어학, 13, 129-151.
- 이호영, 국립국어원 (2009). 새터민 언어 적응 훈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국립국어원[편]. 1-70.
- 이홍식 (2007). 새터민의 언어에 대한 연구. 사회언어학, 15, 141-161.
- 전학석 (1994). 함경도 방언의 음조에 대하여. 한글, 224, 95-108.
- 정명숙 (2002). 한국어 억양의 기본 유형과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13(1), 225-241.
- 정순미 (2010).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남한 청소년의 역할. 윤리교육연구, 22, 301-320.
- 정은혜 (2011). 현대 육진 방언 자모음에 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조소연 (2019). 탈북대학생 커밍아웃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미래사회, 10(1), 99-114.
- 조연주 (2018). 북한이탈주민 대상 정착 목적 한국어 교수요목 설계 연구. 현대북한연구, 21(3), 84-125.
- 조완철, 조위수 (2018).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적응을 위한 발음·억양 교육 실천사례 특성 분석. 현대북한연구, 21(1), 208-241.
- 최미영 (2013). 새터민 성인의 문장읽기 억양 특성.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허웅 (1985). 국어 음운학. 서울: 샘문화사.
- Robert Ramsey, S. (1974). 咸鏡 慶尙 兩方言의 액센트 研究. 국어학, 2, 105-132.
- Jun, S. (2000). *K-ToBI(Korean ToBI) Labelling Conversations: Version 3.1. Phonetics, 99*, 149-173.
- 투고일자: 2024. 8. 31.  
 심사일자: 2024. 9. 25.  
 게재확정일자: 2024. 9. 30.

# Development of Intonation Correction Program for North Korean Defectors to Settle in Korea

Sooyeon Lee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foundation for active language adaptation education to North Korean defectors who wish to adapt the South Korean society by correcting their intonation and then verifying the effectiveness. In this study, North Korean defectors attempt to correct their intonation by visually presenting an the intonation curve using the voice-analysis program Praat. This is performed to improve their current intonation of the Hamgyeong dialect by acquiring the basic Korean accent-pattern THLH and sentence type. An experimental text is designed to improve the tone of the stress mouth pattern, as well as the boundary tone of the intonation mouth for plain and negative texts. The intonation of two North Korean defectors are corrected. The result of intonation evaluation by three language-education experts on a 5-point recut scale indicates significant improvement after proofreading is performed for all sentences. Additionally, the appearance of the intonation curve before and after intonation correction show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intonation curve, instead of those of the Hamgyeong dialect, are visually presented.

*Keywords: North Korean defectors, language adaptation, accent correction, intonation, intonation boundary tone, accentual phrase*